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

우범기 시장,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 열고 4년차 시정 운영방향 발표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해 전주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고, 더 크고 강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완주-전주 통합을 이뤄내는 등 도시의 미래를 바꿀 대담한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16면>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우 시장은 이날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지난 3년은 대외적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전주시민과 함께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하며 완전히 새로운 전주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다져온 시간이었다"며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힘껏 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미래 광역도시 도약과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일상의 대전환을 이뤄내 경제도, 산업도 으뜸가는 전주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 시장은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를 슬로건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대담한 도전 △미래 광역도시를 향한 혁신적 도약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일상의 대전환 등 3대 비전과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10대 추진 전략은 △전주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추진 △광역도시 기반 확충 △경제·산업 고도화 △문화·관광·관광 메카 조성 △탄소중립 선도 △민생경제 회복 △교통인프라 혁신 △전주형 돌봄 강화 △창년희망도시로 도약한다.

먼저 시는 세계 속에서 성장하는 도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주올림픽 유치와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대담



우범기 전주시장은 3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도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 올림픽 유치위원회 설치 등 대한민국의 역할을 하 나로 결집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올림픽 범시민 지원위원회 구성과 올림픽 데이런 행사 추진 등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뜨거운 열망을 바탕으로 전주의 도전이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올림픽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전주올림픽의 핵심 공간이 될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지방도시간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해 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도시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광역도시로

나아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완주·전주 통합을 이뤄내는 데 총력을 기울 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민간단체들과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완주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시민 서명운동과 주민 간담회 등 민간 주도의 통합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면서, 통합시의 미래 비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미래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종합경기장 부지 조성과 전시킨벤 센터 건립공사 착수,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및 교도소 이전부지 사전절차 착기 추진 등 광역도시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수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해 지역 내 수소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탄소제품 포

준·인증 기준 마련과 다공성 탄소 소재 기반 제품 개발 등 주력산업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해 강한 경제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오는 9월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월드컵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전주 고도 지정과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전주 부성 복원 정비 등 역사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대한민국 대표 영화·영상 거점도시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주를 세계적인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도 공을 들인다.

시는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일상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정부 기조와 발 맞춰 빠르고 강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 장터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퇴직연금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동시에 시는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가 열린 만큼 광역도로 및 철도 등 관련 사업들이 정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올 하반기에는 기린대로 BRT 구축 공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인프라도 꾸준히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우범기 시장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고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내일의 전주는 오늘보다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민선8기 전주시는 앞으로도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대변혁의 길을 무척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주민센터에 3일 전주형 특화사업인 '전주 함께라면'에 참여한 주민 김향희 씨가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해 라면(40개입) 5박스(20만 원 상당)를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 함께라면’ 따뜻한 나눔

사업 참여 시민 김향희 씨, 호성동에 라면 5박스 기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주민센터(동장 정문구)에 3일 전주형 특화사업인 '전주 함께라면'에 참여한 주민 김향희 씨가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해 라면(40개입) 5박스(20만원 상당)를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나눔을 실천한 김향희 씨는 "라면이라는 품목이 기부자에게는 작

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함께라면에 지속 참여하고 있다"며 "힘겨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함께라면 사업에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계속 홍보할 예정이 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3일 덕진구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전주요양원을 찾아 시설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점검

우범기 전주시장, 시설 안전 여부 점검·입소자·종사자 격려

연일 34도를 웃돌른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이용자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일 덕진구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전주요양원을 찾아 시설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요양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소방시설과 전기설비, 위생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특히 우 시장은 화재 등 민약의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와 폭염 대비 냉방시스템 작동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어르신들의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셔야 할 요양시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요양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종사자 여러분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위한 가로수 정비 박차

전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본격 추진기로 했다.

시는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및 자체 인력을 통한 정비를 통해 여름철과 새터로 등 총 8개 노선의 회화나무와 플라타너스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건전한 수목 생육을 돕고, 보행자 안전 및 차량의 시야 확보가 요구되는 구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매년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정화 기능이 있어 필수적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효자1동·지사협, 복지사각지대 발굴·착한가게 홍보

전주시 효자1동주민센터(동장 최정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순자)는 3일 금호이퍼트 및 서부시장 일대 병의원, 약국, 상가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착한가게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주민센터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관내 위기가구 발굴과 착한가게 기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모두가 행복한 동네만들기에 동참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효자1동 지사협 위원들은 새 계절로 나누어 동네 지역 상가 및 병의원 구석구석을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



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방법을 안내하며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또한 효자1동 행복동네 CMS 후원 참여 홍보전단지과 홍보물품 등을 나눠주면서 지역 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가게'를 적극 홍보하며 나눔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의 논의는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